

현지 맛 그대로...아시아 음식 한자리서 맛본다

광주시 동구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

내일 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일원
요리연구가 이해정 '푸드 토크'
수타 퍼포먼스·버스킹 공연 등 행사
10월까지 매일 넷째주 토요일 열려



▶지난달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서 열린 아시아음식점 창업 오픈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김밥을 자르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태국의 쌀국수, 팟타이, 중국의 양꼬치, 말레이시아의 스프링롤, 마카오의 주빠빠오, 라오스의 코코넛 롤빵 등 아시아 음식의 인기가 날마다다.

최근 광주시 동구에는 현지 맛을 그대로 살린 아시아푸드 레스토랑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길게 줄이 늘어진 핫플레이스 가게들 중 열여섯 곳은 아시아 푸드 음식점이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일원에서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시아음식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맛에 빠지고 아시아의 맛에 젖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남도의 전통음식과 다양한 아시아음식

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은 아시아 음식을 소재로 맛과 멋을 즐기고 나누며 아시아 각국의 맛을 공감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동구는 이번 페스티벌 외에도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아시아음식점 유치, 상징조형물 제작, 문화가도디자인 개선, 광섬유 바닥블록 설치 등 아시아음식 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21일 개막 순서는 ▲요리연구가 '빅마마' 이해정의 '푸드 토크'를 시작으로(오후 5시) ▲오프닝 행사, 중국 전통 태극부채춤 공연 등 개막식(오후 7시) ▲전자 현악팀 및 DJ존자의 EDM 디제잉 등 축하공연 ▲푸드 관련 강의 및 레시피를 소개하는 '줌

마들의 식탁' ▲거리로 고급레스토랑을 설치하는 '로드 레스토랑' ▲식재료 장터 '아시아 마켓' ▲아시아 야시장 이미지를 연출하는 '골목 in 아시아'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무중력 인간 퍼포먼스 ▲수타 퍼포먼스 ▲버스킹 공연 ▲아시아 각국 문화지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축제기간 동안 아시아 국가 셰프와 요리를 주제로 음식에 관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쿠킹콘서트인 '맛있는 푸드

토크', 아시아의 야시장이나 뒷골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시아 뒷골목 주전부리'가 펼쳐진다. 또한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요리경연대회', 아시아음식 문화지구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지구 내 상인 요리경연대회', 각 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를 테마로 매월 다양하게 벌어지는 아시아의 축제 '국가 DAY'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일 1회(중장축제 기간 2회) 넷째 주 토요일 아시아음식 문화지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축제기간 동안 아시아 국가 셰프와 요리를 주제로 음식에 관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쿠킹콘서트인 '맛있는 푸드

토크', 아시아의 야시장이나 뒷골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시아 뒷골목 주전부리'가 펼쳐진다. 또한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요리경연대회', 아시아음식 문화지구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지구 내 상인 요리경연대회', 각 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를 테마로 매월 다양하게 벌어지는 아시아의 축제 '국가 DAY'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아시아음식 문화지구를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방문객들이 다양한 공연, 체험도 즐기고 각국의 이색적인 음식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의기자 ej6621@kwangju.co.kr

제63회 호남예술제 국악 입상자 명단

<심사위원> 서담(전남도립대 교수) 표윤미(전남도립국악단)	▲은상 1 홍준서(용주초3) ◇소고 초등부 5.6학년 ▲동상 3 차재우(미산초6)	◇가야금 산조 창작 단체 초등부 ▲은상 1 문예민 외 1명(살레시오초)
◇타악 단체 초등부 ▲금상 1 홍준서 외 11명(초등연합원초)	▲장려상 1 정다아(광주운암초6) 2 안재민(월계초5)	◇가야금 산조 창작 단체 중등부 ▲동상 1 한도경 외 1명(중등연합원초)
1 현진영 외 9명(광주송원초) ◇장구 단체 중등부 ▲동상 1 이지민 외 3명(살레시오초)	▲금상 1 김도연 외 9명(광주송원초) ▲동상 1 문정운(살레시오초6)	◇가야금 산조 창작 초등부 3.4학년 ▲은상 1 김경은(살레시오초3)
1 이지현 외 1명(중등연합원초) ◇장구 초등부 3.4학년 ▲금상 1 이지훈(동곡초4)	▲장려상 ◇가야금 병창 단체 초등부 ▲최고상 1 김도연 외 9명(광주송원초)	◇가야금 산조 창작 초등부 5.6학년 ▲장려상 1 장나윤(살레시오초5)
2 차재원(미산초4) ◇장구 초등부 5.6학년 ▲은상 1 김희진(대봉초5)	▲금상 2 김도연 외 4명(광주송원초)	▲장려상 1 이지유(살레시오초6)
2 안민지(동곡초5) ◇장구 중등부 1.2학년 ▲동상 1 공민규(고려중1)	▲은상 1 김효원(광주송원초6)	◇가야금 산조 중등부 1.2학년 ▲은상 2 김여진(풍암중1)
◇소고 초등부 3.4학년	1 김효원(광주송원초6)	▲동상 1 이은세(남평중1)

서석당 토요일상설공연, 예향금예술단 공연 일요상설공연, 우제길 화백과 이야기 마당

봄향기 그윽한 주말 연휴, 전통문화관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 먼저 21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는 토요일 상설공연으로 예향금예술단의 무대를 볼 수 있다.

이날 무대는 2018년 황금 개띠 해를 맞아 '개띠령'과 따스한 봄날을 반기는 '복숭아 꽃', '내 고향의 봄'을 가야금병창으로 선보인다. '예향금예술단'은 광주에서 현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주단으로, 전통공연과 창작 국악연주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창작활동을 펼치는

전통문화예술단체다. 문의 062-232-1595
22일 오후 2시에는 일요상설공연으로 공예놀이 체험과 우제길미술관 초청 이야기마당이 펼쳐진다.

오후 3시에는 서석당에서 빛의 작가 맞아 '개띠령'과 따스한 봄날을 반기는 '복숭아 꽃', '내 고향의 봄'을 가야금병창으로 선보인다. '예향금예술단'은 광주에서 현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주단으로, 전통공연과 창작 국악연주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창작활동을 펼치는

광주·전남발전협 24일 '광주 향약과 공동체 의식' 세미나

광주 향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박재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중앙로 유림회관 대강당에서 '광주 향약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우리 향약의 효시인 부요정(芙蓉亭) 향약을 모태로 한 광주 향약의 발전 방향을 제시, 사회 공동체 의식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최영관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경하(다빈치교양대학장)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가 '조선시대 향약과 광주 향약의 성격'에 대해, 전영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과 향약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선 김선상(광주시 남구 문화정책실장), 김선술(광산포럼 설립자), 김용집(광주시의원), 고선주(광남일보 문화부장), 이종일(향토문화개발협의회장)씨가 참여한다. 세미나 전에는 흥겨운 국악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33-1922. /김미은기자 mekim@



이돈홍 작 '문심무괴'



리우정청 작 '두보추흥팔수지사'

'20년 書友' 한중 대표 서예가 이돈홍·리우정청 춘수모운展 6월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학정 이돈홍

한국과 중국 대표 서예가가 만났다. 학정(鶴亭) 이돈홍 선생과 중국의 리우정청 선생이다. 20년 넘게 서우(書友)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두 사람이 광주에서 뜻깊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양국의 서예기법과 전통을 비교해 보는 의미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매년 한차례씩 여는 대한민국 명품전의 일환으로 '예결금관(藝結金關)-한중 대표 서예가 이돈홍·유정성(리우정청) 춘수모운(春樹暮雲)'전을 오는 6월 17일까지 제 1, 2전시실에서 개최중이다.

미술관측은 오는 25일(нат12시~오후 1시30

분)에는 '제1기 광주미술관 런치토크 강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돈홍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진행, 작품 세계와 삶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원고 이광사의 계보를 따르는 송곡 안규동 선생을 사사한 이돈홍 선생은 중국 자금성 궁궐물관에 작품이 영구 소장 되어있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작품세계를 인정받고 있다. 리우정청 선생은 100권에 달하는 '중국서법전집'을 발행한 출판인이자 현재 세계서예가협회 중국수석 주석을 맡고 있는 중국 서단의 대표작가다.

또 한국미술협회와 미술문화원에서 수여한 세계서예공로상과 2005년 전북국제서예비엔날레 대상 수상하는 등 한국 서예계와도 인연이 깊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대가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족자·액자·병풍 등의 형태로 설치된 학정 선생의 작품에서는 다양하면서도 깊은 서예 기법을 느껴볼 수 있다. 또 리우정청 선생의 전시 작품들은 모두 하얀 비단으로 규격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

런치토크는 선착순 50명 모집하며 간단한 먹을 거리를 나누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료 참여. 문의 062-613-71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 신안군 압해도 북흥리 1810㎡ 저수지임 조용한생활적합 4700만원
-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 3136㎡ 전원생활적합 5700만원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시 30분 내 6천만원

주택 · 원룸 · 아파트

- 전원주택 함평 해보면 대지 966㎡ 집 79㎡ 티아라에서 차로5분 1억5500
- 월산동 소방도로점 2층 주택 전채공실 토지 150㎡ 1억7천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투자 · 매도 · 교환

- 곡성군 죽곡면 선진리 압록부근 계획 관리지역 1439㎡ 판선 등 적합 1억2천2백 전원주택 적합 4751㎡ 1억6천 임야 10512㎡ 1억
- 수목정(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중용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쌍촌동 소방도 대지 118㎡ 상가주택 적합 1억5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앞 664㎡ 2층주택 사할적합 분할매도 가능 4억7천
- 나주 남평시내 상업지 2919㎡ 개발적합 공시가 8억8천 매도39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찻집등적합 1억7300
- 고흥 나로도부근 판선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양동시장건너 재개발지역 대로면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충진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북동 5층건물 대지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대지 155㎡ 건물 263㎡ 은행 1억4천 매도 3억7천
- 충진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북구 문흥중 대지 171㎡ 5층 상가주택 491㎡ 임대생활적합 7억6천
- 양동시장 대로면 땅 2902㎡ 주상복합개발적합 은행 30억 매도 67억
- 순천만 판선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 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중용 11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앞문앞

2층주택 사정상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6200만원
- H. 010-6838-1230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